

남미 3개국 순방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

홍성우 세계지역연구2센터 아프리카중동·중남미팀장 (swhong@kiep.go.kr, Tel: 044-414-1150)



차 례

1. 남미 3개국 순방 배경
2. 국별 순방의 주요 성과
3. 남미 순방의 의미와 향후 과제

주요 내용

-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순방해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교역·투자 확대, 에너지 수입 다변화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함.
- ▶ [국별 주요 성과] 남미 3개국과 핵심광물·전략산업·교역·투자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정상회담 성과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고위급·실무 협의체를 구축·재가동함.
 - [브라질]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하고, 항공우주·핵심광물·에너지·첨단기술·방산 등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소통 채널을 신설함.
 - [칠레] 양국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정례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한-칠레 FTA 현대화 협의 재개와 투자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함.
 - [아르헨티나] 핵심광물·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K-푸드 시장 접근성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에너지 협의체 재가동에 합의함.
- ▶ [순방의 의미] 이번 순방은 △ 한국의 경제안보 협력 외연 확대, △ 미주 공급망 재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시장 접근성 제고, △ 양국 간 협력 채널의 제도화, △ 남미 외교 재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의미가 큼.
 - 남미 자원 부국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확보 기반을 확대함.
 -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강화와 미-중남미 경제협력 확대에 따른 미주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남미 주요국과 자원·산업·투자 협력 기반을 강화함.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한-칠레 FTA 현대화, 투자·비관세장벽 개선 등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 기반 강화에 기여함.
 - 고위급·실무 협의 채널을 재가동·정례화해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연결할 기반을 마련함.
 - 남미 주요국과 정상급 교류를 재개하고, 협력 분야를 경제안보·첨단산업으로 확대함.
- ▶ [향후 과제] 남미 주요국과의 협력 모멘텀을 지속하는 한편, 정상회담 성과를 중장기 협력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소비재·최종재 중심으로 대남미 수출 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핵심광물·에너지·인프라 등 중장기 사업은 지역별 여건과 인허가가 중요한 만큼, 브라질·아르헨티나에서는 주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해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1. 남미 3개국 순방 배경

■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7월 26일 브라질을 시작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차례로 순방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 글로벌 불확실성 심화에 대응하여, 최근 미국, 일본, EU 등 중남미 역외국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전략을 마련하고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음.

-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는 핵심광물 부존량(reserves)이 풍부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부상함.
 - 2025년 기준 브라질의 희토류 부존량은 1,100만 톤으로, 중국(4,400만 톤)에 이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기록하였고,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920만 톤,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은 44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3,700만 톤)의 각각 24.9%와 11.9%를 차지하고 있음.¹⁾
 - 미국 기업인 USA Rare Earth가 브라질 희토류 채굴·정제 기업인 Serra Verde를 인수하였고, EU가 브라질과 협력 파트너십으로 리튬, 니켈, 희토류에 대한 공동투자를 추진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브라질을 방문해 희토류 관련 프로젝트를 점검하였음.²⁾
 - 일본 기업 및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는 2025년 6월 칠레와의 광업 분야 민관합동회의에 참여하였고, 2025년 12월 칠레 국영 구리 기업 Codelco와 구리 원료 불순물 저감 기술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음.³⁾
 - 미국은 2026년 2월 아르헨티나와 체결한 상호무역투자협정(ARTI: 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and Investment)에서 핵심광물 조항을 별도로 두어 자국 기업 지원을 위해 △ 지방정부 협력 및 투자 지원, △ RIGI 신속 처리,⁴⁾ △ 광업 인프라 정부 투자 확대, △ 미국 우선 파트너 지정 등을 명시하였음.
- 메르코수르(MERCOSUR)-EU 임시 무역협정(iTA) 발효, 메르코수르-일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중국 제조기업의 브라질 진출 본격화 등 역외 주요국의 남미 진출이 가속화되는 추세임.
 - 메르코수르와 EU는 협정의 신속한 발효를 위해 ‘무역’에 관한 협정만을 iTA로 분리하여 발효하였고, 메르코수르와 일본은 2026년 6월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음.⁵⁾
 - 중국 BYD는 브라질에서 에탄올을 사용한 하이브리드 차량(plug-in hybrid flex car) 생산을 본격화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브라질을 중남미와 제3국을 겨냥한 생산·수출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함.⁶⁾

1) USGS(2026),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6,” p. 119, p. 153.

2) Reuters(2026. 4. 20.), “USA Rare Earth buys Brazil's Serra Verde for \$2.8 billion, extending takeover spree,” <https://www.reuters.com/business/usa-rare-earth-acquire-brazils-serra-verde-28-bln-2026-04-20/>; Global Gateway, EU-Brazil Partnership,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document/download/c0651334-6feb-4353-8ef7-07e1e1b61e27_en?filename=EU-Brazil-partnership.pdf;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er Sikela concludes Global Gateway investment mission to Brazil,” https://international-partnerships.ec.europa.eu/news-and-events/news/commissioner-sikela-concludes-global-gateway-investment-mission-brazil-2026-06-26_en?prefLang=m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8. 7.).

3) 経済産業省, 「指定されたページまたはファイルは存在しません」, <https://www.meti.go.jp/press/2025/06/20250619004/20250619004.html>; https://www.jogmec.go.jp/english/news/release/release_00428.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8. 7.).

4) RIGI(Régimen de Incentivo para Grandes Inversiones)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2억 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 30년간 세제 감면, 관세 면제, 외환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혜택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임.

5) 박미숙(2026), 「브라질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배경과 시사점: EU 및 일본을 중심으로」, KIEP 세계경제 포커스.

6) Reuters(2026. 8. 4.), “BYD debuts first Brazilian-made plug-in hybrid flex car as sales surge,” <https://www.reuters.com/world/asi>

-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시기에 이루어진 이번 순방의 목적은 △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파트너십 강화, △ 교역·투자 확대 및 글로벌 시장 개척, △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 글로벌 사우스로의 외교 지평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⁷⁾

2. 국별 순방의 주요 성과

가. 브라질⁸⁾

- [한-메르코수르 협상 재개] 2026년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공식 발표를 목표로 양자 실무그룹 설립에 합의함으로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공식 재개를 위한 기반이 조성됨.
- [전략산업 협력 강화] 미래 전략산업 및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항공우주, 핵심광물, 제조·산업기술, 방산 등의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전략적 MOU를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강화함.
 - [한국 우주항공청-브라질 우주청] 국내 민간 발사체의 브라질 발사장 이용 시 발사 허가 및 규제 절차 간소화, 위성 데이터 공유, 우주 탐사 협력
 - [KAI-엠브라에르] 민항기·항공우주 분야 R&D, 미래항공모빌리티(AAM) 협력
 - [포스코인터내셔널-Meteoric Resources] 희토류의 안정적 조달, 공급망 구축
 - [한국 산업통상부-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공급망 기초요소, 바이오 경제, 지속가능 연료, 산업 탈탄소화, 저탄소 소재, AI 등 7대 첨단전략 분야의 기술 협력
 - [한국 외교부-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재생에너지,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분야 정책·기술 공유,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 현대자동차는 브라질의 탈탄소차 정책인 MOVER, 국가수소프로그램, 국가에너지계획 등 친환경 정책을 고려해 브라질과 그린수소 생산, 수소트럭 도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에 대한 기술 협력을 추진
 - 방산공동위원회 출범, '군사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 협의 개시
- [고위급 소통 채널 신설]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고위급 소통 창구를 신설해 양국 기업의 애로 해소 및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기반을 마련함.

a-pacific/byd-debuts-first-brazilian-made-plug-in-hybrid-flex-car-sales-surge-2026-08-04(검색일: 2026. 8. 7.).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7. 22.), 「이 대통령, 미국·남미 3국 순방…미 AI빅테크들 만나 '샌프란 AI 선언」(검색일: 2026. 8. 6.).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7. 28.), 「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7. 28.),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7. 29.), 「이 대통령 "한국 기술-브라질 자원 합친다면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8. 10.).

- 양국 진출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플랫폼의 전담 창구로 브라질 부통령과 한국 대통령실 정책 실장을 전담 라인으로 지정하고, 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하는 것에 합의함.

나. 칠레⁹⁾

- [핵심광물 협력 강화] 기존의 양국 간 협의체인 자원협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하고, 핵심광물 관련 MOU 체결 및 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핵심광물 협력 체계를 고도화함.
- 기존의 차관급 자원협력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하고, 동 위원회 산하에 국장급 실무 채널을 신설함으로써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확보함.
- 2004년 체결된 ‘광물자원 협력 MOU’를 격상하여 ‘광물자원 파트너십 MOU’를 체결해 공동 탐사, 개발, 가공·제련, 재활용 등 광물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함.
- LS MnM과 칠레 국영 구리기업 Codelco는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이에 따른 전력망·전력 설비 등 전력 산업의 성장에 대응한 구리 공급 협력 강화를 계획함.
- [교역·투자 여건 개선] 한-칠레 FTA 개선을 위한 협의 채널을 재가동하고, 투자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가동하여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FTA 현대화를 위한 협의를 추진함.
- 한국 코트리아와 칠레 투자유치청(InvestChile)은 ‘한-칠레 투자협력 MOU’를 체결해 투자정보 교환, 유망 프로젝트 발굴, 기업 네트워킹,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확대와 신규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계획임.

다. 아르헨티나¹⁰⁾

- [핵심광물 협력 강화] 양국 정부는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하고, 핵심광물 관련 정책·투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리튬 탐사·채굴 등 공급망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함.
- 아르헨티나 내에서 한국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리 등 여타 핵심광물 분야로 한국 기업의 투자·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함.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7. 31.), 「이 대통령 “한-칠레 FTA 개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더욱 강화”」(검색일: 2026. 8.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7. 31.), 「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검색일: 2026. 8. 10.).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 8. 4.),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2026. 7. 31.)」(검색일: 2026. 8. 10.).

- [교역·투자 여건 개선]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 추진, △ ‘이중과세방지협정’ 최종 타결, △ K-푸드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시 비관세장벽 완화 논의 등을 통해 한-아르헨티나 간 교역 확대와 대아르헨티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
 -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의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함.
 -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대아르헨티나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
 - K-푸드의 아르헨티나 수입·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한국을 ‘고위생 감시국’으로 지정하는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합의함.
 - 아르헨티나는 2025년 제도 개편을 통해 고위생 감시국 인증받은 식품의 경우 사전 등록과 일부 심사 절차를 면제하고, 수입 선서진술서(Declaración Jurada de Importación) 중심으로 절차를 간소화함.¹¹⁾
- [정부 간 협업체 재가동]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관리·이행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한-아르헨티나 경제공동위원회’ 및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재가동에 합의함.
 -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 투자, 기업 애로사항, 시장 접근 문제 등을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 위원회에서는 리튬, 구리, 원유, 가스, 원자력 등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협의할 계획임.
- [에너지 수입 다변화]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하고, 향후 천연가스·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의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안정적 수급을 도모함.
 - 한국 기업은 2026년 아르헨티나산 원유 88만 배럴을 시범 도입¹²⁾하고, 2027년부터 원유 수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천연가스·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 범위를 넓혀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로 합의함.

3. 남미 순방의 의미와 향후 과제

가. 순방의 의미

- [경제안보 외연 확대]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확보를 위해 남미 자원 부국과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탐사·채굴·가공·투자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이번 순방은 한국의 경제안보 협력 대상국을 남미 국가로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단순 수입을 넘어 탐사·채

11) Argentina.gob.ar, “CODIGO ALIMENTARIO ARGENTINO,” <https://www.argentina.gob.ar/normativa/nacional/decreto-35-2025-408481/texto>(검색일: 2026. 8. 10.).

12) 연합뉴스(2026. 8. 1.), 「한·아르헨 정상회담…“내년부터 원유 수입”」, <https://www.yna.co.kr/view/MYH20260801001100038>(검색일: 2026. 8. 10.).

굴·가공·투자 및 기업 간 공동 프로젝트 발굴로 협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공급망 다변화와 중장기 자원 확보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함.

- AI,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발전으로 핵심광물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 보유국과의 직접적인 협력 채널 구축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음.
-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한-칠레 FTA 현대화 논의의 본격화는 핵심광물 관련 교역·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및 관련 공급망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미주 공급망 선제 대응] 남미 주요국과의 자원·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 강화, 중남미 내 중국의 영향력 변화 가능성, 미국-중남미 간 경제협력 확대 등으로 인한 향후 미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따르면 미국은 중남미 내 역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공급망·핵심광물·전략 인프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트럼프 2기의 대중남미 정책은 안보·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중남미 국가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1기와 차별화됨.
 - 2026년 초 미국은 아르헨티나·엘살바도르·과테말라·에콰도르 등과 각각 상호무역협정 또는 상호무역투자협정을 체결해 관세 인하를 통한 대미 시장 접근 확대뿐 아니라 비시장정책(non-market policy) 국가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조항을 포함하였음.
 - 2026년 4월 미국과 칠레는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 탐사에서 가공에 이르는 공급망 전반에서 투자 촉진, 경험 공유,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틀을 마련함.¹³⁾
- 이러한 미국의 대중남미 정책이 지속될 경우 중남미 내 중국의 영향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주 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구축될 개연성이 큼.
- 미주 내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번 순방은 향후 남미 주요국과 한국 기업 간 자원·산업·투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미주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는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를 자국에 위치시키려는 현지화(localiza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사우스와의 경제협력은 단순 교역을 넘어 투자를 통한 현지 공급망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 향후 미국-중남미 일부 국가 간 경제·공급망 협력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미주 내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경우 이번 순방을 통해 구축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중남미 주요국과 연계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새로운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13)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Gobierno de Chile firma acuerdos con Estados Unidos para fortalecer cooperación en minerales críticos y seguridad," <https://www.minrel.gob.cl/sala-de-prensa/gobierno-de-chile-firma-acuerdos-con-estados-unidos-para-fortalecer>(검색일: 2026. 8. 10.).

- [시장접근 제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한-칠레 FTA 현대화, 투자·조세 제도 개선, 비관세장벽 완화 등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진출과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의 연내 재개에 합의하고, 칠레와는 FTA 현대화 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향후 남미 주요 시장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아르헨티나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과 K-푸드 인증·등록 절차 개선 논의는 각각 투자 여건 개선과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대아르헨티나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협력 채널 제도화] 기존 고위급 협의체를 재가동 및 정례화하고 실무 협의 채널을 신설함으로써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여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됨.
 - 남미와의 경제협력은 정부 간 정책 신뢰와 기업 간 장기적 관계 구축이 중요한 만큼, 정상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협의 채널 구축이 상당히 중요함.
 - 예컨대 일본은 1973년 ‘일본-브라질 경제합동위원회’를 설립해 장기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일본경제단체연합회(케이란렌)와 브라질 산업연맹(CNI)은 2025년 제26차 일본-브라질 경제합동위원회를 개최함.¹⁴⁾
 - 일본-브라질 경제합동위원회는 일본-메르코수르 EPA 추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공동 제언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민간 협력 의제를 정부의 통상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¹⁵⁾
 - 특히 투자·자원개발·인프라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은 정책 변화, 인허가 등 다양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어 고위급·실무급 협의체의 정례적 운영이 사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남미 외교 재활성화] 과거 상대적으로 정상급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남미 주요국과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고, 양국 간 협력을 경제안보 및 첨단산업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장기적 협력 기반 강화에 기여함.
 - 기존 교역·투자 중심의 협력을 핵심광물·에너지·항공우주 등 전략적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남미 주요국과의 관계를 경제안보와 미래산업을 포괄하는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기반을 강화함.
 - 남미 3개국과의 정상급 교류를 통해 양국 관계에 대한 정치적 신뢰를 높이고, 장기간 정체되었던 협력 의제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나. 향후 과제

- [지속적인 소통] 이번 순방을 계기로 재가동 및 신설된 협력 채널이 과거와 같이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정례적인 고위급·실무 협의를 지속함으로써 남미 주요국과 정책적 신뢰를 축적할 필요가 있음.

14) 外務省, 「ページが見つかりませんでした」, https://www.mofa.go.jp/mofaj/press/release/press5_000103.html; <https://www.keidanren.or.jp/policy/2025/055.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8. 11.).

15) Keidanren, 「石破首相、岩屋外相、武藤経産相に「日本メルコスールEPAの早期実現を求める共同提言」を建議」, https://www.keidanren.or.jp/journal/times/2024/1128_01.html; JETRO, 「ページが見つかりません」, <https://www.jetro.go.jp/biznews/2014/09/5417d9c00fa00.html>(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6. 8. 11.).

- 과거 메르코수르는 역외국과의 시장개방에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지속적인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형성이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EU-메르코수르 협정이 약 20년 간의 협상 끝에 타결된 이후 2026년 5월부터 임시무역협정이 잠정 적용 되는 등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메르코수르의 대외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남미 주요 국과 협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 정상회담 합의 및 MOU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지방정부와도 협력해 프로젝트 발굴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핵심광물·에너지·인프라 등은 사업기간이 길고 지역별 지원, 산업 여건, 인허가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기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과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연방제 국가에서는 주정부 역시 투자유치, 자원개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의 협력을 주정부와의 프로젝트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수출 품목 다변화] 원자재 및 중간재 중심의 교역을 넘어 소비재와 고부가가치 최종재의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남미를 한국산(Made in Korea) 제품의 주요 소비시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대중남미 수출과 투자 대부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출 품목 다변화의 정도가 크지 않았음.¹⁶⁾
- K-뷰티 및 K-푸드 등 한국산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재와 최종재를 중심으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해 남미를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16) 홍성우 외(2024), 『한국의 대중남미 통상환경 평가와 정책과제』, p. 184, KIEP.